



미 증시, 고점 부담 속 연준 위원 매파 발언 등으로 약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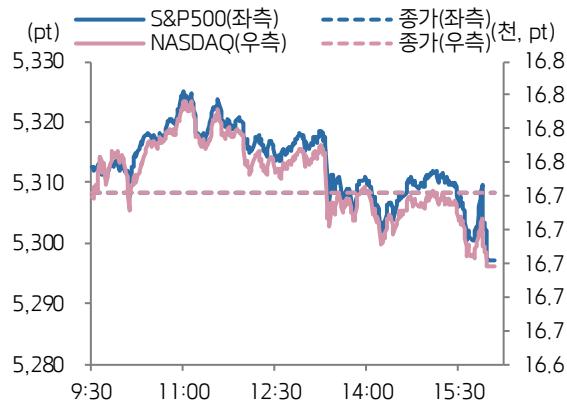
16 일(목) 미국 증시에서는 월마트(+7.0%)의 호실적에 따른 소비경기 불안 완화 등으로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4 만선에 도달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장 중반 이후 지수 고점 부담 속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(다우 -0.1%, S&P500 -0.2%, 나스닥 -0.3%).

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(+1.5%)를 제외한 경기소비재(-0.8%), 소재(-0.7%), 산업재(-0.7%), 에너지(-0.4%)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. 월마트(+7.0%)은 1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식료품 사업 호조, 배송 서비스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.

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4 월 CPI 가 완화된 것은 지난 몇 개월 간 실망스러웠던 결과 이후 처음으로 보인 발전이지만, 통화정책 전환을 실행할 만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.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입수한 데이터들은 2% 물가 목표 도달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. 따라서 인플레 하락 경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.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4 월 CPI 가 나쁘지 않게 나왔으나,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높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라고 언급. 또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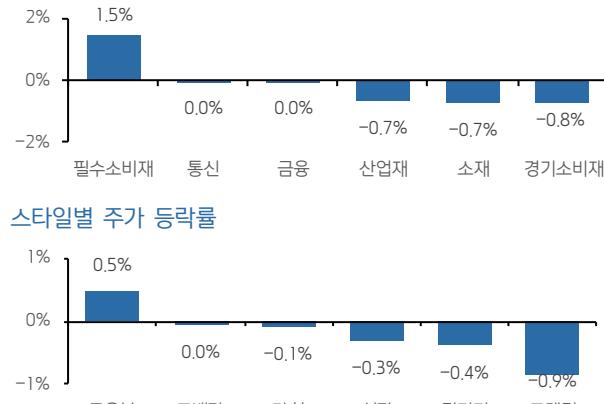
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.2 만건으로 전주(23.2 만건)에 비해 감소했으나, 컨센(21.9 만건)은 상회.. 4 월 수입물가는 0.9%(MoM)으로 전월(0.6%) 및 컨센(0.2%)을 상회. 수출물가도 0.5%(MoM)으로 전월(0.1%) 및 컨센(0.4%)을 상회. 4 월 산업생산은 0.0%(MoM)으로 전월(0.1%) 및 컨센(0.1%)에 비해 부진했으며, 전년동월비(YoY) 기준으로는 -0.38%로 전월(0.09%)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.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4.5pt로 전월(15.5pt) 및 컨센(7.7pt)를 모두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. 신규주문(12.2 → -7.9)이 큰 폭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었으며, 가격지불지수(23.0→18.7)도 하락하는 등 제조업 단위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753.00	+0.83%	USD/KRW	1,345.14	-1.12%
코스피 200	374.60	+0.96%	달러 지수	104.50	+0.15%
코스닥	870.37	+0.95%	EUR/USD	1.09	+0.01%
코스닥 150	1,411.83	+1%	USD/CNH	7.22	+0.01%
S&P500	5,297.10	-0.21%	USD/JPY	155.37	-0.01%
NASDAQ	16,698.32	-0.26%	채권시장		
다우	39,869.38	-0.1%	국고채 3년	3.377	-7.5bp
VIX	12.42	-0.24%	국고채 10년	3.465	-8bp
러셀 2000	2,096.25	-0.63%	미국 국채 2년	4.795	+7.2bp
필라. 반도체	5,017.54	-0.55%	미국 국채 10년	4.375	+3.5bp
다우 운송	15,560.92	-0.13%	미국 국채 30년	4.512	+1.2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5,072.45	-0.56%	WTI	79.23	+0.76%
MSCI 전세계 지수	794.08	+0.04%	브렌트유	83.27	+0.63%
MSCI DM 지수	3,468.71	-0.1%	금	2385.5	-0.39%
MSCI EM 지수	1,098.56	+1.28%	은	29.67	+0.51%
MSCI 한국 ETF	66.37	-0.82%	구리	489.2	-1.56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82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21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47.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경제지표 부진, 월마트 실적 호조, 엇갈린 연준위원 발언 등 혼재된 결과 지속
2. 신규 재료 부재 및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심리 높아진 상태
3. 국내 매크로 환경 완화되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환매 장세 예상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한국, 미국 모두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했으나 경제지표 부진, 월마트 실적 호조, 엇갈린 연준위원 발언 등 혼재된 결과 지속되며 상승탄력은 약화. 금리인상 경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지표 부진이 호재로 작용하는 국면이지만, 동시에 경기 연착륙 불확실성 역시 부각되며 시장금리, 달러는 하락 후 소폭 반등.

연준위원들은 전일 CPI 와 소매판매 결과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, 전반적으로 4 월 CPI 는 긍정적이었으나 한달만의 수치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 유지, 소매판매 둔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. 또한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전망치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을 QOQ 3.8%로 지난주 4.2%에서 0.4%p 하향. 4 월 소매판매 부진을 반영하여 2분기 실질 PCE 증가율을 3.9%에서 3.2%로 하향한 영향.

시장 심리 관련해서, 15 일에 나온 BofA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경기침체 전망에 대해 경착륙 전망 비율은 지난달 7%에서 11%로 증가, 노랜딩 전망은 36%에서 31%로 감소. 또한 경기개선 기대감에 대한 응답 역시 재차 하락하여 기준선 0 하회하며 매크로 비관론이 소폭 우위. 주식 비중은 22 년 1 월 이후 최대치, M7 에 대한 선호도가 51%로 가장 높은 동시에 안전자산인 달러 롱 포지션 선호도가 12%로 2 위.

즉 CPI 효과 반영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고 연내 2 회 금리인하 전망 회복하며 지수 역시 4 월 하락폭을 회복. 신규 재료 부재 및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심리 높아진 상태로 예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되돌림 나올 수 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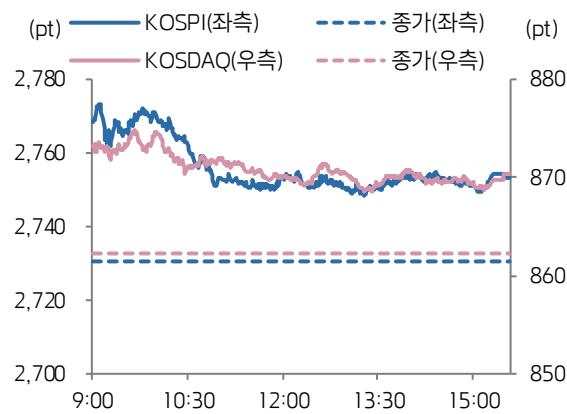
16 일(목) 국내증시는 시장금리 하락, 원달러 환율 급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외국인 현선물 매수세 유입되며 대부분업종이 강세 (KOSPI +0.83%, KOSDAQ +0.95%)

위험선호심리 우위로 이차전지, 바이오 등 성장주뿐만 아니라 호실적에 보험, 증권 등 저 PBR 업종 역시 동반 상승했으나,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저항받으며 상승폭 소폭 축소. 금일 역시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출회 및 중소형주 순환매 이어지며 제한된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.

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은 국내 반도체 강세 및 나스닥 신고가 경신으로 선반영. 결국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추가 이익개선 모멘텀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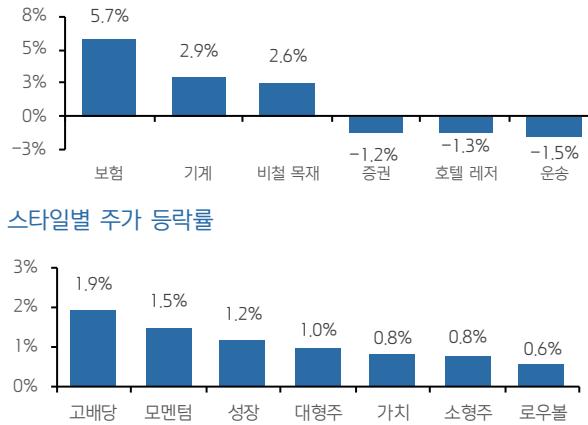
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. 관세 인상율이 높기는 하지만, 철강, 반도체, 전기차, 태양광 모듈 등 이미 제재가 가해져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하거나, 멕시코, 동남아 등으로 우회수출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직접 수입품에 가해지는 영향 및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. 향후 우회수출 경로 차단 및 유럽의 관세부과 동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성이 리스크이나, 이에 따른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하이브리드차, ESS 배터리, 미국의 중국 견제 확산에 따른 레거시 반도체,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등에 주목할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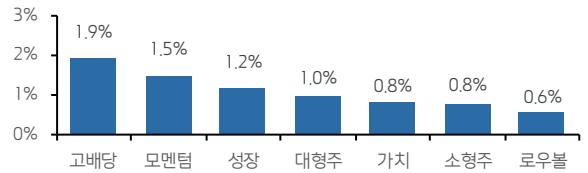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